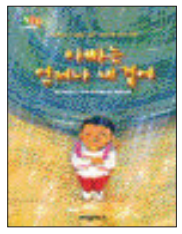


[북 스]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독일 아동문학회가 추천한 독일의 대표 작가 인거 헤르만의 성장 동화. 갑작스럽게 맞게 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아빠와 함께한 추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크레용하우스·6천500원>



▲꿈꾸는 사다리=용돈만 주고 일을 나가버리는 엄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둔 주인공이 사다리를 통해 꿈을 꾸는 서정적인 이야기.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어긋난 허영심을 꼬집고,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찾는 과정이 담겼다. <작은책방·9천원>



▲놀라운 동물, 식물=세계 지도를 통해 신비로운 동물과 식물의 세계를 안내해 주는 책. 참나무에 동지를 틀고 살아가는 다양한 곤충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딱한 사연이 실렸다. 시각 디자이너 박수지씨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삽화를 곁들였다. <계림북스·8천500원>



▲나의 베트남 일기장=어려서 프랑스로 입양된 한 베트남 소녀를 통해 입양과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인공은 친부모를 원망하지만 차츰 함께 사는 프랑스 가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슬픈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맑은기쁨·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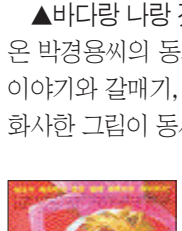
▲굴뚝 청소회사 사장님=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동화 '신데렐라'의 뒷이야기를 미국작가 수 겔러휴가 재미있게 지어냈다. 거만한 왕자에게 흥미를 잃은 신데렐라가 달라진 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이다. <새로운 제안·9천원>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6가지 성공습관=국민 MC 강호동과 세계적인 여행가 한비야씨는 성공하기 위해 어떤 생활습관을 가졌을까? 어린이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유명 인사들의 습관을 재미난 삽화와 글을 통해 소개한다. <아이북데이·1만원>



▲나에게는 네 명의 부모가 있어=방랑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한 '사춘기, 은밀한 고백' 시리즈 중 3번째 이야기. 엄마와 새아빠, 아빠와 새엄마가 이룬 두 가족을 오가며, 새로 생긴 가족들과 살아가는 주인공의 갈등을 다뤘다. <해와나무·7천500원>



▲바다랑 나랑 갯마을=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박경봉씨의 동시집.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갈매기, 소라 등 생명체들의 신비를 노래했다. 파스텔톤의 화사한 그림이 동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창개구리·8천500원>



▲토끼의 히든카드=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24가지의 우화를 담았다. 우화의 대표적인 동물 8명이 각 파트로 나뉘어 그에 해당하는 우화를 소개한다. 입이 가벼운 수다쟁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등 다양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미래와 경영·1만2천원>

희망을 길어 올리는 흙냄새, 사람냄새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이철수 지음



관화가 이철수씨가 충청도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고, 관화를 새기며 지낸 지 22년이 되었다.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 '이철수의 집' (www.mokpan.com)을 통해 매일 사

는 이야기를 엮어서 쓰고 그려 부친 지도 7년이 됐다.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는 최근 2년 동안 쓴 엮서 가운데 140편을 골라 엮은 것이다. 이름 하여 '이철수의 나뭇잎 편지'다. 예술가답게 그가 만든 엮서는 앙증맞다. 손바닥만 한 나뭇잎 한 장짜리 공간은 웅성끓고 정갈한 사색의 공간이 되었다. 일 년 열두 달, 그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소식, 집 안팎에서 만난 생명과 생명 아닌 것들을 보며 느낀 단상들,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세상의 진창길과 그 길에 희망이 되는 징검다리 이야기들을 듣고 느끼는 바를 드로잉과 관화 그림 여백에 적었다. "상처 없고 흠 없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겨울 들머리에 남부레진 나무들의 숲에 가서도 나무들이 고된 삶을 만나기 어렵지 않듯, 사람들의 숲



보다 더더가시고 너네 무려들 열세가 있었을지라도, 만물이 죽어서 짐승들의 생명력이 사라진다면, 한없이 죽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흠과 여백이 없이는 거칠기이다. 한바탕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흠과 여백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흠과 여백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흠과 여백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흠과 여백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흠과 여백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인 세상에도 상처 있으면 있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존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15쪽 '있는 그대로')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본다. 살고자 온 힘으로 세상을 버티는 초목들도 그렇지만, 살면서 보게 되는 사람들 모두가 온통 불 햇살 같이 그 곁에 오래 있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또 잠 못 이루는 밤 말아도 자고 깨어나면 늘 아침 햇살을 손님으로 맞이하듯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처럼 어둠 끝에 밝음이 오는 것도 정해진 이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엮서에는 자연과 봄을 예

찬하는 글이 유난히 많다. '고마운 봄이 오시네' 편에 엮은 '꽃 앞에 서다' '봄비 고마울 뿐' '제 생명 향할 곳으로' '초식동물의 밥상' 등에는 작가의 긍정적 사고가 묻어난다. "꽃들은 죽자고 꽃대를 밀어 올리고, 그 끝에 마음의 듯 피워내는 화사한 얼굴로 흔히 제 이름을 삼지요. 꽃은 비 이어지는 계절에는 그 화사함이 빛바래기도 합니다. 좋은 날 못 보고 스러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꽃이 아니라 할 수 있나요? 꽃이 그러하듯 우리 삶도, 비 오시고 눈 내리고 꽃은 날 갠 날 있지만 연연한 한 생애일 겁니다. 쉽게 마음 접지 마시고, 흰내시기를..."(95쪽 '꽃은

날도 죽기 살기로 화사한 꽃처럼') 이씨는 또 '꽃은 날에도 죽기 살기로 꽃대를 밀어 올리는 꽃'처럼, '거칠 것 없는 푸르름 한 장인 하늘'처럼 존재 자체로 자신의 생명을 긍정하는 것들에 시선을 두면서 그 마음 닦아 가자고 한다. 아름다운 세상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으며 같이 힘내 살자고 어게를 다독인다. 모두가 어렵다는 이 때 생명이 꿈틀대는 그림과 글들을 알약처럼 꼭꼭 삼키고 다가올 새 봄에는 희망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성싶다. <심인·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녀 교육과 '아이의 행복'

'알파맘 베타맘'

장윤정 지음



최근 자녀의 두 가지 교육방식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SBS스페셜(방송작가 장윤정) '알파맘 vs 베타맘, 당신의 선택은?'이 책으로 나왔다. '알파맘'이란 자녀교육에 기업·경영적 요소를 가미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엄마를 일컫는 말이며, '베타맘'이란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게 하는 엄마들을 말한다. SBS스페셜은 이 두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알파맘과 베타맘의 실제 교육방식을 밀착 취재하는 등 자녀교육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많은 엄마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한국에서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가지 엄마상은 각각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알파맘은 기존의 '내치동엄마'나 '강남엄마'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베타맘식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과연 이 살벌한 대한민국 입시전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파맘이든 베타맘이든 그들은 오로지 '아이의 행복'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엄마들이란 사실이다. <노마드북스·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슴 찡한 가족 이야기

'착한 가족'

서하진 지음



곁에 있을 때는 번거롭고 귀찮지만 헤어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존재가 가족이다. 중견 소설가 서하진씨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소설집 '착한 가족'을 내었다. 표제작 '착한 가족'은 아들, 남편, 어머니를 위해 전혀 다른 세계의 가면을 능숙하게 바꿔쓰는 여자의 이야기다. 아침에는 폭력사건에 연루된 아들의 엄마로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뒤 실직 위기에 처한 남편을 위해 그의 상사를 찾아가 조율이 협박한다. 또 저녁엔 치매에 걸린 엄마를 찾아가 착한 딸 노릇을 한다. 가족을 위해 다양한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주부의 일상을 그린 소설이다. 함께 실린 '아빠의 사생활'은 아빠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미행에 나서서 딸의 이야기를 그렸다. 잊음이 약해 한 음식을 기피하는 아빠가 다른 여자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에 딸은 기겁한다. 소설가를 모델로 삼은 단편들도 눈에 띈다. '인터뷰'에서는 문학상이란 상은 수두룩하게 받은 우아하고 세련된 원로급 소설가 김연숙 선생의 속물상을 드러낸다. <문학과학지성사·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황에 듣는 '경제학 개론'

'19금 경제학'

조준현 지음



그렇게 경제를 잘 안다고 떠드는 정치인들을 뺐을때,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를 게으른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조준현씨의 '19금 경제학'은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까칠한 경제학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19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세상의 틀에 걸맞지 않은 다양한 경제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거꾸로 갈수록 우리들의 욕망은 더 많이 급진된다"며 제목에 '19금'을 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한국 사회는 현재 젊은이들의 장발과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자정이면 톱금 사이렌이 울리던 아련의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는 백만장자가 되는 비법 따위는 없다. 주식 투자의 모책도, 부동산 투기의 달콤함도 없다. 다만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조용히 깨우쳐준다. <인물과 사상사·1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겨울방학 대개강 2월 2일

한정승인광고
광 정현택 (500225-1559110)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광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광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광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2125
공 고 인: 정명숙, 정옥현
한정승인수리일: 2008. 12. 31
공고기간: 2009. 1. 10 ~ 2009. 3. 9
연 락 처: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5-11, 301호
정명숙 (011-9095-4529)

광고접수안내
구적·윤정·오진·초봉·영업·모임·매일·매매·임대·전세·부동산
e-mail: dd8111@hanmail.net
직통: (062) 227-9600
팩스: (062) 227-9500
2009년 대학 입시
서울대 12명 합격
국민학원(일곡동) 국민영재학원(봉선동)
062)574-0101 062)672-0483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 전액할부판매
▶ 수출 차량 대한민국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승용/수입차/승용/특장/장비/신용계
전차종 할부판매
이전비/등록비/보험료 포함
전액할부(은 없이 차량구입), 무이자10개월/대출이자 월 100만원 당 4,500~7,500원
무상 A/S 5개월 5,000km/1년 20,000km
당일출고/최상의서비스(연진오일/잇연오일/시트커버)
등록비용
전국 최대 규모 매장 보유/국내·외 차량 대량보유
현대 포터 1.25톤 2003년~2004년까지, 포터 슈퍼캠, 일반캠, 덤프, 카고, 탑차 2003년~2008년
포터 II 슈퍼캠, 일반캠 2004년~2008년까지 덤프, 카고 매입
마티지 2.5~25톤 2003년~2007년까지 덤프, 카고 매입
현대 대우-기아 4.5~25톤 초장축 2003년~2007년까지 덤프, 카고 매입
현대 대우-기아 8톤 11톤 16톤 18톤 25톤까지 덤프카고 추레리 헤드 매입 (현대) 테라칸, 컨티페, 뉴센타페, 베라쿠르즈, 투싼 4륜 구동 (기아) 뉴스타디오, 쏘렌토, 4륜승용차 230승용, 뉴코란도 230승용, 렉스턴 4륜 구동
[주]나플레옹 무역상사·수출모터스
위치: (호남 최대 풍암 3단지)
062)651-6006
H. 010-2954-6990